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10단계

성경과 사회

Bible & Society

01	과학과 기적	2
02	과학 시대의 창조 신앙	14
03	시대의 변화와 성도의 대응	20
04	진화론과 창조주 하나님	26
05	자연과 인간	40
06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	44



첫 번째 시간

과학과 기적

마가복음 8:1~10

10단계의 목적

10단계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으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오늘의 세상을 성경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무려 4000년 전의 책입니다. 수렵 시대와 농경 시대가 주된 배경이 된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나 기술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시대의 환경입니다. 오히려 미신과 우상 숭배, 종교적 주술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성경도 그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오늘날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교통의 발달은 옛 사랑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에게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루 만에 지구의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제 성경은 영적인 도움이나 필요한 책이고 개인적인 위로와 의미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실제 세상을 이해하거나 살아가는 데는 전혀 필요 없는 책이라고 여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욱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성경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성경의 진리는 항상 영원합니다. 더구나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기에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의지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토와도 같이 모여서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형성합니다.

10단계의 관점

10단계의 가정은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은 진화론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론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도 돌보십니다.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것은 쓸모없고 오늘 시대의 것만 맞다는 진화론적인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은 더욱 정교해지고 온전해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입장도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세상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며 성도가 취할 태도는 세상을 도피해야 한다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장 비성경적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회복하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엔 하늘과 땅을 회복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함(창 12:1-3)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나선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다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라는(롬 14:17)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바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축복받고 죽은 뒤에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지만

우리의 발은 항상 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교회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분야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밝혀둡니다.

과학과의 대화

먼저, 우리는 과학과의 많은 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과 창조론의 입장, DNA등으로 대표되는 생물학, 인공 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세상과 성경의 세상 등.

우리는 오랫동안 과학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적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해 편견과 오해가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과학 자체의 반성이나 변화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학은 아인슈타인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뉴턴(John Newton)으로 대표되는 과학은 이미 과학계에서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오히려 기독교에 더 호의적입니다. 빛을 연구함으로써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전혀 다른 두 실체로 구성되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며 하나가 되어있다는 이론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의 본성과 일치하며 아울러 만물을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맹목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공격과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과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학문입니다. 여기엔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과학에 대해 열린 마음

다음으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지 않으면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도리어 반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제 자신 또한 과학의 이론들에 대해서 너무나 천박하고 피상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의 틀에 갇혀서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양 만족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도 틀에서 벗어나서 신실하고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에 대한 격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독교 과학자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과학을 대한다면 이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데에는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의 “The Case for a Creator” 이란 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글은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제목 : 과학을 넘어 기적으로 (2016년 8월 7일)

기적의 바른 이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오해는 정상적인 신앙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당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기적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현대는 기적을 무시하는 것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약화는 기적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적과 신앙에서 오는 기적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기적이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적이 불신됩니까?

성도는 기적이 불신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불신되는

이유는 과학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과학은 기적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은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이 어렵습니다. 성서학 중에서 성서비평학이 발달 하면서 성경을 과학적사고와 논리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신뢰성’에 대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기적에 대한 믿음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논리로 오병이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학자가 찾은 성경이 가진 내적 일관성

한 젊은 과학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가 인류에서 곧 제거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학자는 과학을 통해서 기원, 의미, 목적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질문과 함께 이 젊은 과학자는 성경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세상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는 창조에 대한 질서를 발견합니다. 과학자는 성경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관찰해가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발견합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성경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대단한 것입니다.

과학의 근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일관성을 과학에서는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영원한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와 성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볼테르는 25년 후 성경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기독교는 과거의 일로 남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뉴턴의 등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뉴턴의 과학은 18세기 최고의 이론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은 뉴턴의 비문에 “자연과 자연법칙은 어둠 밤에 숨겨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처럼 환해졌다.” 로 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후 19세기는 프레넬(Fresnel)의 이론이 등장했고, 20세기 초에는 양자이론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이론들은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의 대체는 과학에서 말하는 영원성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책은 과학에 대해서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이 적어도 세계의 한 부분을 설명해줄 안정적이며 참된 이론을 마침내 발견했다고 믿었던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믿을 법했던 시기가 존재했었다. 적어도 역학 분야에 관해서는 18세기 전반이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론 물리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수정되고, 그리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념은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이론이 이전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폐기처분되어 쓰레기 더미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일관성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관성이 없다고 여긴 성경이 내포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2000년 전에 보았던 성경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젊은 과학자는 앨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입니다. 그는 현재 신학을 공부하면서 “과학과 신학”이란 책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세계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의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노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베푸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기적과 우리의 삶

하나님은 성도를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적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제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의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표적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이 고통 함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누라는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과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배고픈 무리들과 절망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성도에게 믿음의 확증을 심어줍니다. 기적은 이 땅의 생명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시간

과학 시대의 창조 신앙

출애굽기 6:4~9

창조 신앙의 중요성

기독교에 있어 창조 신앙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흔히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 신앙을 구속 신앙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 없이 구원(구속)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구원의 범주보다 창조의 범주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기획에 대한 매우 편협한, 인간중심적이고 교회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대답입니다.

개혁신학 전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인간뿐 다른 모든 피조물도 참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단순히 인간 구원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다양한 차원

‘창조’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연관되지만 구분되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 활동이고,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세상 사이의 관계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창조의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바른 창조 신앙은 기본적으로 처음 두 가지 차원, 곧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 활동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세상 사이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 두 차원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의 함의를 갖기는 하지만(예를 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상응하는 규칙성,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상응하는 창조성 등), 이 세 번째 차원은 창조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17-18세기 과학 혁명 이후 출현한 근대 과학은 창조의 세 번째 측면 곧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물론 근대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배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연 세계의 사실들과 인과 관계들을 탐구합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거나 논박하는 시도는 범주 혼동의 오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믿기에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모종의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 세계의 오묘한 질서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지혜, 자연의 악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신비 등).

앞서 언급한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이 서로 떼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세 번째 차원 곧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자연 세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근대 자연 과학 활동은 비록 간접적이거나 창조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접촉점이 창조 신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는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의 빛들을 많이 가져다줍니다. 통상적인 자연 과학자들과 달리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자연과학적 탐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자연과학적 탐구 결과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깨닫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요컨대, 신학은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창조 신앙과 ‘창조 과학’의 구분

창조 신앙은 전통적인 교의학(조직신학)의 창조론 혹은 창조 교리(doctrine of creation)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창조 교리는 오늘날 창조 과학의 창조론(creationism)과 혼동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한편, 한국 교회에서 ‘창조론’은 대체로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창조론 특히 창세기 1장의 문자주의적 해석에 기초한 6일 창조론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creationism)이 교의학(조직신학)에서 창조주 하나님 및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세상의 관계를 다루는 창조론(doctrine of creation)과 전혀 다른 교리 혹은 이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창조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팽배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의학(조직신학)의 창조론을 창조 과학의 창조론과 구분하기 위해 ‘창조 교리’ 혹은 ‘창조 신학’ 혹은 ‘창조 신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창조 과학의 창조론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을 고수하며 기원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창조 신앙 혹은 창조 신학은 세상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시고 장차 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기원론의 범주를 훌쩍 넘어섭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가 창조 신앙의 대표적인 성서적 증언임은 분명하지만, 창조 신앙의 성서 신학적 근본 뿌리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발견됩니다. 모세를 통해 명료해진 유일신 신앙은 다른 모든 우상들을 피조물의 지위로 상대화시키는 창조 신앙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 대한 세세한 관찰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보는 지혜 문서 역시 창조 신앙을 증언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과학 시대의 기독교 창조 신앙

창조 신앙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출현한 이후부터, 아니 출애굽 이후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규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변화면서 창조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은 당대의 세계관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창조 신앙의 핵심을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고백하고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성경적 창조 신앙을 새로운 언어로 재구성함으로써 과학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창조 신앙을 설득력 있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시대에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새로운 언어를 찾는 과정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혁명의 경우에도 그러했듯이, 신학의 여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체로 상당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산고의 그것처럼 매우 의미 있는 열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시대의 변화와 성도의 대응

마가복음 9:1~13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은 대화의 내용을 짧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매우 의기양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랑과 죄의 역사

그런데 그 자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전쟁 이야기를 평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의 엄청난 사건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알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이 결국 죄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들은 자랑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된 생명, 진리, 자랑을 물리 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As I Please)” 대하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엘리아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와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것과 세상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해롯에 의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군중들의 요구 곧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의미

많은 사람들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도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이 땅의 죄악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회복되어 광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산자와 대화를 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 중요한 사건으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명입니다.

조롱받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고 말씀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근대 과학의 발전은 과학적 사고와 논리, 이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짓 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은 그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멸시와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알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고난과 멸시 없이는 결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멸시는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부활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지만 고난을 말해야 하며 승리를 하지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승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잉태의 고난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이미 왔음에도 왜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당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이익을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에는 온전한

드림과 자기 부인,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며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근대화, 세속화, 과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통찰하고 말하려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약해짐은 십자가를 제외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없음은 바로 십자가를 외면하고 등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신 주님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잃어버림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제외한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진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의 진리를 산 위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산 위에서 들은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을 다하셨습니다. 산 아래는 고난과 멸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결국 새 생명을 위한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동일한 고난과 멸시를 받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소금이기 때문에 더욱 그 어려움의 현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가진 무리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목표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 순간 얼굴과 얼굴을 대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변화산의 영광은 도리어 조롱을 당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고통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며 삶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도 고난이 없는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생명이 고난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성도에게 주어진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산 아래에 내려가서 멸시와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

진화론과 창조주 하나님

시편 8:1~9

다윈의 진화론

1871년 찰스 다윈은 자신의 편지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암모니아, 염분, 빛, 열, 같은 것들이 갖추어진 어느 정도 따뜻한 연못에서 단백질 군락(a protein compound)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마이클 덴튼(Michael Denton)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기본 이론을 요약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초기 지구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종합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세포의 형성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고대 바다에서 축적된 것으로서 ‘생물 발생 전 수프(prebiotic soup)’ 이라고 불리는 영양 죽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거대한 분자(macromolecules), 단백질, 핵산(nucleic acids)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마침내 수 백 만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거대 분자의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더 정교하고 복잡한 자기 복제 분자 체계가 진화되었고 최종적으로 가장 단순한 세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 발생전 수프(prebiotic soup)란 것이 존재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생명 기원에 관한 이론들은 이 고대의 화학 바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바다가 존재했다면 그곳에는 아미노산(amino acids)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소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nitrogenous). 그렇다면 초기 지구의 퇴적물을 점검할 때 엄청난 질소가 풍부한 미네랄을 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거대한 퇴적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짐 부룩스(Jim Brooks)라는 과학자는 자신의 책, 『생명의 기원』(Origins of Life)에서 오히려 그러한 물질은 0.015프로 정도로 지극히 작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칸브리아 전 퇴적물(pre-Cambrian sediments)이 형성될 때 지구에는 그러한 원천적인 수프(primitive soup)가 없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학자들이 이러한

soup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설령 그러한 수프가 존재했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탠리 밀러(Stanley Miller)가 지구의 초기 모습을 만들고서 전기로 충격을 주었을 때, 존재하는 22개로부터 두 세 개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러가 만든 아미노산은 다른 화학 물질과 반응하면서 오히려 생명에 우해한 갈색 슬러지(sludge)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론들

1. 우연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연에 의한 생명 시작입니다. 생명은 수 백 만년에 걸쳐서 아미노산이 우연히 상호작용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이미 모든 과학자들이 포기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수많은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수 백 만년에 걸쳐서 기억, 니온, 디글 리을 들이 서로 모여서 글자를 이루고 그리고 우연히 한권의 책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글자는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려면 teritary structure라는 최소한의 복잡성(minimal complexity)은 있어야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 복잡성은 적어도 75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molecule가 우연히 형성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아미노산은 왼편과 오른편으로 다가오며 오직 왼편만으로 와야 합니다. 셋째는 아미노산은 문자의 글자와 같이 순서적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렇다면, 우연에 의해서 가장 간단하게 기능하는 단백질을 얻으려 해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것도 단 한 개의 단백질 분자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300개에서 500개가 필요합니다.

2. 자연 선택

다음으로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 이론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라는 과학자는 우연에 자연 선택이 함께 한다면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파른 절벽은 중간의 계단들이 없으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벽 뒤에는 완만한 구릉이 있을 것입니다. 다윈에 따르면 자연은 작은 우연들을 제공하고 자연 선택은 그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벽은 올라갈 수 없어도 뒤쪽의 구릉을 걸쳐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선 화학적 진화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 생명 자연 선택(prebiological natural selection)은 말 자체로 모순입니다. 다윈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선 자기 복제 유기체(self-replicating organism)가 필요합니다. 유기체는 재생산하며 자식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자식들은 살아남고

보존됩니다. 하지만 재생산하기 위해선 세포 분열(cell division)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보가 충분한 DNA와 단백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DNA 안에 있는 필요한 정보를 가지기 전에는 자기 복제 유기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큰 웅덩이에 빠진 아이가 벗어나기 위해선 사다리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웅덩이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복제가 지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일어났고 자연 선택이 이를 취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바이러스가 RNA를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복제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RNA 첫 가정(RNA first hypothesis)라는 이론입니다. RNA도 DNA 처럼 활동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와야 합니까? 또한 하나의 RNA 서열이 복제되기 위해선, 똑같은 RNA 분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바른 길이를 갖기 위해선 수천억년이 요구됩니다.

3. 유사성과 자기 질서

세 번째 이론은 유사성(affinity)과 자기 질서(self-ordering) 이론입니다. 1970년 초가 되면 과학자들은 우연이나 자연선택 이론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세 번째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양한 자기 조직 이론(self-organizational theory)입니다. Dean Kenyon에 의하면, 화학적 끌림(attraction)이란 DNA의 네 글자의 알파벳이 스스로 결합하거나 자연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연결함으로써 단백질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molecule가 정보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단백질은 긴 띠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간에는 끌림이 있어서 줄을 형성하게 되고 단백질이 기능함으로써 세포가 살아나게 합니다.

“끌림”이라는 화학적 힘이 Na^+ 와 Cl^- 를 끌리게 함으로써 소금의 결정 안에 아주 정돈된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단백질과 DNA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아미노산에는 이런 유사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DNA와 단백질 사이에 있는 질서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한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gene이나 단백질을 만들까요?

정보(information)는 다양성과 불규칙과 비예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보학자들은 복잡성(complexity)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법칙은 오직 규칙과 반복적인 패턴만 제공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의 구조는 화학적 끌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DNA molecule에는 두 개의 엇갈리는 중추를 형성하는 수소들의 결합이 있고, 설탕과 phosphate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는 전혀 화학적 결합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nucleotide base들 사이입니다. DNA 메시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설명하는 글자들은 화학적으로 서로 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DNA의 경우 각 글자는 화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글자들 스스로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마력의 글자들을 가지고 철판에 붙입니다. 그러나 글자들 자체는 결코 저절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글자들을 붙여야 합니다. 지성(intelligence)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DNA의 경우 화학이나 물리가 글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성(intelligence)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원인의 힘입니다(casual power). 이는 결과를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결과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연이나 자연 선택은 정보를 생산하는 원인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개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입니다. DNA의 코드 지역(coding region)은 정확하게 컴퓨터 코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련의 순서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지성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빅뱅

지성만이 유전자 물질 안에 있는 정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성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으신 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캄브리아 폭발(Cambrian explosion)의 화석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생명들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온전한 형태로 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designer)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화석들은 다윈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캄브리아 폭발은 약 5억 3천 년전에 시작되었습니다. 500만년 주기(a five-million-year window of time)에 따르면, 세계의 40 phyla 안에 적어도 20번이나 35번까지, 동물의 왕국에서는 최상의 범주가 독특한 육체의 계획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24 시간으로 따지면, 캄브리아 폭발은 1분에 불과합니다. 캄브리아 폭발은 생물학적 복잡성에 엄청난 도약(quantum leap)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지구 위의 생명체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단세포 박테리아, 원시적 벌레들... 그러다가 갑자기 놀랄만한 복잡한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trilobite)과 같은 생물입니다. 복잡한 신경계, 복잡한 눈을 가진 생물이 폭발 시작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지 기간(stasis)이 있습니다. 즉, 처음의 기본 몸의 구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진화론과 전적으로 대치됩니다. 다윈 자신도 캄브리아 폭발이 자신의 이론과 대치된다고 말합니다. 다윈에 따르면 자연은 도약하지 않습니다(natura non facit saltum, nature takes no leap).

문제는 어디서 이 모든 새로운 세포, 몸의 구조를 형성한 정보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다윈 측은 이 모두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의 현상이 갑작스러운 spate of mutation을 가져왔고 그것이 새로운 유기체의 창조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mutation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캄브리안 폭발은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일어났기에 화석이 보여주는 거대한 스케일의 변화에 대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의 생물체의 발달에서 나타난 돌연변이(mutation)들이 대규모의 대진화를 일으켰을 실질적인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이 단계의 돌연변이는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배아들은 죽었거나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 다윈주의는 아래에서 위로의 패턴을 주장합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캄브리안 폭발은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형태나 몸의 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작은 변형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의 패턴은 기술 발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는 모터와 운전 축과 두 개의 축과 네 개의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발명품들의 계획은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본래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귀하게 여기고 사고 팝니다. 정보는 정신의 표식입니다. 정신은 의식적 활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뇌는 3파운드 밖에 되지 않지만 100억 개(10 thousand million)의 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회전들이 고유한 인간 의식이라는 현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정보는 물질로부터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과 에너지를 초월합니다. 진화 이론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정보를 설명하는 것은 오직 intelligence입니다.

생물의 구조와 진화

“모든 세포는 하나의 공장과 같아서 정교한 조립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자의 네트워크는 큰 단백질 기계들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포를 기계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 단백질 조립들은 기계와 같이 지극히 잘 협력하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애버트(국가 과학 아카데미 회장, President,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우리는 지적인 디자인(Intelligent Design)을 우연과 필요의 대화라고 바꾸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생명의 존재는 다윈의 진화에 따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의 과학자들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자연 과정(naturalistic processe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때 과연 단백질이나 유전자 코드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떤 힘의 도움 없이 생명으로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진화론의 문제는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분자 현상(molecular phenomenon)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진화론이 맞다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그리고 DNA을 말하는 현미경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맞다면, 그 분의 흔적이 모든 세포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포는 믿을 수 없이 정교한 세계로서 하나의 세포는 수 억 만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말하기를,

“하나의 세포는 첨단 공장으로서, 인공적인 언어들과 이를 해독하는 체계들, 정보를 저장하고 반출하는 기억 창고들, 부분과 요소들의 조합을 자동적으로 통제하는 정교한 통제 시스템,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들, 조립 공정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계도 따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기계이며, 전 구조를 단 몇 시간 안에 복제할 수 있는 기계와 같습니다.”

베헤(Behe) 같은 과학자는 진화론은 마치 기계를 말하지만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윈에게 세포는 블랙 박스(black box)와 같습니다. 다윈의 시대에는 세포가 나누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세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단순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의 밑바닥에는 분자의 차원이 있으며 여기까지 가면 엄청난 복잡함(complexity)이 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책, “종의 기원”에서 말하기를, “만일 수많은 연속적 수정들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 이론은 파산입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포는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함께 일합니다.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거하게 되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결코 다윈이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처음부터 함께 해야 작동합니다.

그러면 모든 요소들이 일하도록 누가 지시합니까? 누가 이 모든 요소들을 함께 묶어 두었습니까? 이것들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이 안에 정보를 넣었음이 분명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세포는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윈은 이 정교한 체계 안에는 어떤 지적인 체계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평생을 통해서 부품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절로 모여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섬모(cilia)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섬모는 세포의 표면에 붙어있는 채찍 같은 털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에는 섬모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각 세포는 약 200개의 섬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함께 하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호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섬모는 액체 위를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단순하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섬모는 아주 복잡한 분자 기계들입니다. 대부분의 털은 앞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모에는 길고 가늘고 구부러지는 막대와 같은 미세한 9개의 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깥과 안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섬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깥 섬모는 넥신 링커(nexin linker)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섬모는 다이네인(dynein)이라고 불리는 운동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단백질은 하나의 섬모에 붙어 있으며, 팔이 있어서 다른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는 서로 서로에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 넥신 링커는 뻗치면서 단단해집니다. 다이네인이 멀리 밀수록 구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밀게 됩니다.

섬모에는 막대기와 연결고리와 운동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해 진화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만 명이 운동장에 모였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이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잡도록 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포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만나는 것만도 해도 수 억 년이 걸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테리아입니다. 섬모는 배의 노처럼 세포를 움직이지만 편모(flagellum)는 회전하는 프로펠러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편모는 박테리아만 가지고 있습니다. 편모의 프로펠러는 길고 채찍과 같은 모양이며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고리(hook) 단백질에 의해 구동축(drive shaf)에 연결되어 있고 이음새처럼 활동함으로서 프로펠러와 구동축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축받이 물질처럼 움직임으로써 구동축이 박테리아 벽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고, 회전 기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서 얻습니까? 에너지는 운반 분자(carrier molecule)라 불리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모는 다른 체계를 사용합니다. 박테리아 피막(bacterial membrane)을 통과하는 산(acid)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정확히 모르는 과정입니다. 편모의 전체 체계는 1분에 일만 번 회전합니다. 프로펠러는 4분의 1 지점에서 정지하고 일만 rpm으로 즉각적으로 다시 회전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버그교수(Howard Berg)교수는 이를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편모는 두 마이크론의 크기입니다. 한 마이크론은 한 인치의 2만분의 1이며, 모터는 한 인치의 10만분의 1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술로도 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자연과 인간

창세기 1:24~31

오늘 시대의 특징은 급격한 복잡함과 변화입니다.

80년대만 해도 컴퓨터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조와 물건들, 인간관계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예민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통합되고 안정된 자아를 찾느냐에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한 가지 직업이 일평생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아 정체는 점점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할 도덕이나 신앙을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 종류의 상담 기관들이 등장하고 설교에도 성경에 기초한 자아를 강조하며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고통은 사회적 고통이나 자연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의 아픔은 바로 자아의 혼란과 깊이 관계되어 있으며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공해나 잦은 지진들, 기후의 변화 등의 자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먼저 인간에 대한 해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외(alienation)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외라는 말은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마땅히 함께 하며 서로 협력하며 관계해야 할 요소들이 함께 하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신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할 관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관계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왜 소외 현상이 지금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enlightenment)라는 사상이 시작된 때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행동과 사회를 주관합니다. 계몽주의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근대 과학의 전례 없는 혁명으로부터 사회를 규정한 원칙을 찾는 사상입니다. 근대 과학은 관찰(observation)과 이성(reason)에 따라서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면 몰아냈습니다. 처음엔 과학적 사고 역시도 성경의 전통과 권위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을 앞세우면서 성경의 권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부터는 사물의 목적이나 가치가 사라지고 대신 관찰과 설명에만 집착하게 되는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 자체 또한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미와 목적을 버리고 현실에 대한 수학적 기술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를 집대성한 사람이 뉴턴(1642-1727)입니다. 뉴턴은 우주를 작은 단위로 나누면서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 분리된 객체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턴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우주와 분리되어 멀리 계신 분이었고 우주는 시계와 같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실체는 수학적인 설명에 매달리면서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뉴턴의 윤리 체계에 따르면 자기 이익(self-interest)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도 개인이 기본 단위이며 개인만의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주의(individual)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이 궁극적인 실체였으며 어떤 권위나 전통도 개인을 정복해선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은 각자가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크(John Locke) 같은 철학자는 선이란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악은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노력은 개인에게 집중되었고 인간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객체(object)가 되었고, 개인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고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외 현상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며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 4:1~10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통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입니다.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의미, 통일의 길들,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 통일과 제자 사역, 교회의 사명 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할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관계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원래 하나였던 관계가 전쟁이든 어떤 이유로든 나누어져 갈등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이란?

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통일의 첫 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통일을 원하지만 전혀 다른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됨을 의미하며 그 하나됨이란 일방적인 하나 됨이거나 획일적인 하나 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만물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신 분이며 성자 역시도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샬롬과 통일

통일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개념을 따라야 합니다. 샬롬은 만물의 근본이며 성경의 중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중립적 공존을 말함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며 의존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마 6:9-13)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란 삼위일체의 관점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모든 생명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며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생명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에 어떤 인간적인 장애도 넘어섭니다.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며 종교와 정치와 계층을 넘어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관점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관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성자 하나님의 관점이며 또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니다(엡 4:2).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5-6).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대립하는 것은 근대 과학의 산물입니다. 근대 과학은 만물을 둘로 나누었고 서로 대립하며 불신하는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서 객관을, 논리와 감정을 나누어서 논리를,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서 인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물의 근본을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근대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과학에서는 오히려 양편을 존중함으로 다름 가운데서 하나로 규정합니다. 빛이 질량과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함께 하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관점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성과 신성이 갈등도, 바꿈도, 나눔도 분리도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반공이나 승공, 멸공, 적화의 관점은 만물의 근본과 어긋나는 관점이며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통일 교육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요구한 것처럼 생명은 억압에서 벗어나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일 교육과 제자화 사역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제자화 사역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화 사역이란 단지 지식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삶과 인격, 믿음과 소망을 나누는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배우는 사람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제자 사역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서 이에 따라 훈련의 관정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제자 사역은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까? 제자 사역의 중심 내용은 성경에 나타는 중심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즉, 창조, 죄,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종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적인 주제들일 뿐 아니라 삶의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복한의 대응 내용을 밝히는 일이며 서로 변증법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내용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또 다른 독재입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대화함으로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공부”의 틀이 아니라 설교를 서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함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단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도리어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룹 역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가르침은 자칫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게 되거나 편협한 관점을 갖도록 하기에 금해야 하며 대중적인 모임은 집단의 힘을 요구하는

독재식 형태입니다. 소그룹은 6, 7명 정도가 좋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하며, 남북이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반공과 멸공을 부르짖는 것은 성령을 오히려 떠나는 것입니다.



Memo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_ 골로새서 1:20



Memo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_ 골로새서 3:2,3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Memo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
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_ 갈라디아서 6:14



Memo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_ 디모데후서 2:3,4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_ 히브리서 4:15



Memo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_ 에베소서 4:32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12단계 개관

- 1 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 단계 성경의 기본 I
- 3 단계 성경의 기본 II
- 4 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 단계 성경과 영성
- 8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 단계 성경과 사회
- 11 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
- 12 단계 성지순례